



■ KIA 금주의 프로야구

강팀들 깨야 초반 상위권

“물러 설 수 없는 6연전, 침체된 분위기를 끌어올려라.” 3승 5패 0.375의 승률로 7일 현재 중간 순위 5위에 머물고 있는 KIA타이거즈가 8일부터 SK와이번즈와의 홈 3연전에 이어 롯데 자이언츠와의 원정 3연전을 펼친다.

SK(4연승)·롯데(팀 타율 1위)와 힘겨운 승부 될 듯

오늘 서재웅 앞세워 1승 쟁기면 팀 분위기 반전 기대

SK는 최근 4연승으로 4위에 올랐고, 팀타율 1위의 롯데는 타선의 폭발로 전체 2위로 페조의 짚지를 하고 있는 만큼 힘겨운 승부가 예상된다. 하지만 KIA 입장에서는 상위권 진입을 위해 이번 주 두 팀을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

KIA는 선발 투수진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타선과 불펜의 부진으로 한화와의 원정경기에서 1승 2패를 안고 돌아왔다. 뭘 듯 뭘 듯 풀리지 않는 경기에 선수단의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다.

조범현 감독은 새 사령탑을 맡으면서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주문하면서 지난해 최하위에서 비롯된 패배의식을 떨치기 위해 애를 썼다.

선수들은 삼성 라이온즈와의 개막 2연전에서 2연패를 당했지만 승리에 대한 의욕이 넘쳤었다. 그러나 투·타의 엇박자로

잡을 수 있었던 경기를 번번이 놓치면서 더욱 분위기가 많이 침체됐다.

만만치 않은 6연전을 앞두고 있는 KIA 입장에서는 분위기 전환이 가장 시급하다.

6연전의 첫 경기인 8일 SK와의 홈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8일 ‘빅 리거’ 서재웅이 나선다. 지난 1일 서재웅은 두산을 상대로 60이닝 동안 5피안타 2사사구 1실점 하며 화려한 한국 무대 데뷔전을 치렀지만 패전투수가 됐다.

노련한 고참 서재웅은 경기중 파이팅을 외치며 팀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서재웅은 팀 분위기 전환과 흠행들에게 한국 무대 첫 승 선물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8일 마운드에 오른다.

타선에서는 절치부심하고 있는 밸데스

와 함께 6연전 전망은 밝다. 물꼬가 터지면 거칠없는 탄선도 롯데의 불꽃 타선에 견주어 손색 없다. 상위권 도약을 위해서는 KIA의 캐치프레이즈처럼 ‘New Start’가 필요하다.

/김여울기자 wool@

내달부터 주말·공휴일

오후 5시부터 경기 시작

한국야구위원회(KBO)는 7일 8개구단 단장회의를 열고 오는 5월부터 프로야구 토·일·공휴일 경기를 오후 5시에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KBO는 올시즌 개막 당시 5월까지는 주말·공휴일 경기를 오후 2시에 시작하고 6월부터 오후 5시로 늦추기로 했으나, 관중 편의를 위해 이를 한 달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무서운 오초아…메이저 2연승

여자프로골프 메이저대회 사상 가장 많은 6명이 ‘톱 10’에 이름을 올렸지만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의 벽에 막혀 ‘코리언 시스터스’의 표정은 밝을 수 없었다.

오초아는 7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란초미라지 미션힐스골프장(파72·6천673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크라프트 나비스코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5타를 줄여 4라운드 합계 11언더파 277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브리티시여자오픈 제페에 이은 메이저대회 2연승을 거둔 오초아는 2주 연속 우승과 함께 시즌 3승으로 독주체제 굳히기에 나섰다.

통산 20승을 채운 오초아는 명예의 전당 입회에 필요한 포인트도 1점만 남겼다.

통신 20승…‘명예의 전당’ 눈앞

이선화(6위) 등 한국 6명 톱10

LPGA 나비스코챔피언십

우승 상금 30만 달러를 받아 시즌 상금을 85만5천550 달러로 늘려 상금왕과 디상왕 타이틀을 밤에도 일찌감치 예약했다.

HSBC챔피언스에서 11타차 우승을 차지한 오초아는 세이프웨이 인터내셔널에서는 7타차 우승,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도 2위 그룹을 5타차로 따돌렸다.

HSBC챔피언스에서 오초아에게 완패를 당한 안나카 소렌스탐(스웨덴)과 지난해 5

승을 따내 오초아를 견제했던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가 4타씩 줄이며 공동 2위에 올랐지만 둘러리에 불과했다.

이븐과 72타로 버티며 5위(4언더파 284타)에 오른 이선화(22·CJ), 공동 6위(3언더파 285타)를 차지한 김미현(31·KTF)과 한희원(30·휠라코리아), 최나연(22·SK텔레콤), 그리고 2언더파 286타로 9위에 이름을 옮린 박민비(20)와 공동 10위(1언더파 287타) 박세리(31) 등 6명이 ‘톱 10’에 진입한 태극 자매들의 선전도 빛이 바랬다.

생애 첫 메이저대회 우승에 도전한 한희원은 특히 아쉬움이 많았다. 6번홀까지 버디 2개를 뽑아내며 오초아에 1타차로 따라붙는 듯 했던 한희원은 7번홀부터 3개홀 연속 보기로 주자 앓고 말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연합뉴스

우즈 시즌 그랜드슬램 경쟁

오초아

“시즌 그랜드슬램이 가능하다고 보나?”

7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크라프트 나비스코챔피언십을 제패한 뒤 공식 기자회견장에서 사회자와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오른쪽)가 주고 받은 말이다. ‘로레나라면 가능하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많았다.

그랜드슬램은 같은 시즌에 4개 메이저 대회를 모두 석권하는 것을 말한다. 메이저대회는 평생 한번 우승하기도 어렵다. 4개 메이저대회를 모두 한자례 이상 우승하는 ‘코리어 그랜드슬램’도 LPGA 투어에서 여섯명만 달성했고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는 다섯명뿐이다.

한 시즌에 4개 메이저대회를 모조리 훙쓸 선수는 PGA 투어와 LPGA 투어 모두 한 명도 없었다.

내로라하는 선수들이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자 ‘그랜드슬램은’은 불가능하다



오초아 기량 타의 추종 불허

우즈보다 빨리 달성 할 수도

는 게 정론으로 자리잡았지만 올해 PGA 투어와 LPGA 투어에서 타이거 우즈(미국·왼쪽)와 오초아가 독주체제를 굳히자 슬그머니 낙관론이 고개를 들었다.

둘은 각자 투어에서 ‘차원이 다른’ 골프

를 친다는 점에서 닮았고 부동의 세계랭킹 1위를 지키면서 그랜드슬램 말고는 다른 목표가 없다는 사실도 비슷하다.

우즈에 대해 동료 선수들은 “볼트와 너트로 구성된 스윙기계일 것”이라며 겁을 집어 먹고 있고 오초아도 다른 선수들이 “외계인 아니냐”고 말한다.

오초아는 올해 네 차례 대회에 출전해 3승을 거뒀다. 3승 모두 2위가 따라잡을 엄두조차 내지 못한 완승이었다.

우즈도 네 차례 출전해 3승을 쓸어담았다. 둘 다 우승 못한 대회에서도 ‘톱 10’에서는 밀려나지 않았다. 상금랭킹 1위, 다음 1위에 그린 적중률 1위를 바탕으로 평균타수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렇지만 그랜드슬램 가능성에서는 오초아가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시즌 첫 메이저대회를 제패해 첫 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딘 오초아는 다른 선수들과 경쟁력 격차가 우즈보다 훨씬 크다.

최경주 9언더 11위

PGA 셀hurst 오픈 최종

‘완도랭크’ 최경주(38·나이키골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를 앞두고 출전한 셀hurst 오픈에서 아쉽게 ‘톱 10’ 문턱에서 좌절했다.

최경주는 7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험블 레드스톤골프장 토니먼트코스(파72·7천457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1개를 끊어 2언더파 70타를 쳐 4라운드 합계 9언더파 279타로 공동 11위에 올랐다.

8위그룹(10언더파 278타)에 딱 1타가 모자라 ‘톱 10’ 진입에 좌절된 최경주는 마지막 18번홀(파4) 보기로 아쉬웠다.

그래도 마스터스가 열리는 오거스타에서 널골프장과 흡사하게 조성한 레드스톤골프장에서 최경주는 리운드를 거듭할수록 드라이브샷과 아이언샷 정확도, 퍼팅 컨디션을 끌어 올린 성과를 거뒀다.

우승컵은 1언더파 71타를 쳐 최종 합계 16언더파 272타로 선두를 지킨 존슨 와그너(미국)에게 돌아갔다.

나상우(24·코브라골프)은 1타 밖에 줄이지 못해 공동 26위에 머물렀다.

이승호 ‘역전 불허’ 우승

KPGA 에머슨퍼시픽 최종

이승호(22·투어스테이지)가 눈덮인 일본 도토리현 요나고의 다이센(大山) 아래에서 펩피언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승호는 7일 그린파크 다이센 아난타 골프장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SBS 코리안투어 에머슨퍼시픽 도토리현 오픈 마지막 날 아이언샷과 퍼팅이 크게 흔들리면서 전반에 고전했지만 후반에 타수를 줄이며 13언더파 271타로 우승했다.

비록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3개, 더블보기 1개, 보기 4개를 적어내 3오버파 74타로 부진했지만 나흘 동안 선두 자리를 내놓지 않는 ‘와이어투웨이어’ 우승이었다.

2007년 일본프로골프 신인왕이기도 한 이승호는 일본 땅에서 처음 우승하며 작년 9월 삼성베네스트오픈 우승을 포함해 KPGA 투어 통산 2승을 기록했다.

강성훈(21·신한은행)이 끝까지 주격했지만 1타 뒤진 12언더파 272타로 역전에 실패했다.

나상우(24·코브라골프)은 1타 밖에 줄이지 못해 공동 26위에 머물렀다.

전날까지 5타차 2위였던 허석호(35·크리

스탈밸리)는 6오버파 77타로 무너져 최종 합계 5언더파 279타로 공동 7위로 밀렸다.

이날 경기에서 이승호는 후반에 들어서 11번홀(파4)과 12번홀(파5)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 11번홀에서 1타를 줄인 강성훈과 격차를 다시 3타로 벌렸지만 강성훈의 추격이 만만치 않았다.

강성훈은 14번홀(파4) 버디를 낸는데 이어 15번홀(파4)에서 이승호가 다시 보기를 한데 힘입어 1타차로 승했지만 17번홀(파5)에서 빼아픈 보기 를 하는 바람에 우승컵을 넘겨 줬다.

글프·한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록펠러 회원권
제작 「록펠러 회원권」이, 상공회비에서 월드컵 경기장 티켓 예매도 티켓을 유통 확장하겠습니다.
제주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고의 거래소
경험 분위의 (062)351-0095